

(이 글은 생각해볼 만 한 점들을 단순나열한 글로, 뚜렷한 결론이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소셜'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것은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다. 통신 서비스가 일반에 보급된 이후로 가장 보편적인 상품이었던 피씨통신 BBS, 이메일, 유즈넷, 게시판,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최근에 소셜 네트워크의 전형으로 취급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는 '소셜'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새삼스러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저 '인터페이스 양식'들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으므로 소프트웨어의 모양이나 구조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하드웨어 면에서는 모바일 기반이나 아니냐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룹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으며, 기존 미디어와의 차별적인 자유도, 반응/전파속도, 정보량 등이 기동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한국과 외국의 각종 활용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도구였다기보다는, 네트워크가 그 동안 지역 커뮤니티로만 소비되다가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활용을 통해서 비로소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역 커뮤니티로 확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뀐 것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발전하면서 연결망의 확장성이 높아졌고 기입력된 정보를 통해 입력하지 않은 정보를 보충하는 지능적인 설계를 통해 최종사용자가 접하는 걸모습은 날로 컴팩트하게 바뀌고 있지만, 인터페이스 그 자체는 아직도 필드나 버튼을 통한 입력과 전송 후 출력이라는 동작을 번갈아 반복하는 선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인터페이스보다는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이렇듯 웹 인터페이스의 기본 아이디어가 큰 변화 없이 발전도상에 머물러 있던 2006년에 트위터가,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했다. 트위터는 140자 단문 SMS를 통해 게시물을 등록하고 구독한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휴대전화의 쓸모를 보통의 전화기에서 광역 네트워크 단말기로 전환시켰고, 아이폰은 히트상품인 아이팟을 통해 사용자의 상당수를 스마트폰 이용자로 흡수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업계 전체를 자극하는데 충분한 규모의 사용자 풀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광역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충분히' 보급되어 장벽이 '현실적으로' 낮아졌고 데스크톱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의 '가시적인'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개별 통신사의 지배를 받는 네트워크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스마트폰으로 불리던 단말기라도 전자수첩 이상의 성능을 갖추지 못했으며, 부담스러운 회선 이용료가 이용자 증가를 막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도 않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어, 사실상 '충분한 사용자 규모를 갖춘 모바일 네트워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있는 곳에서 바로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의 소사는 일부 서구권 선진국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한국에서는 2009년 아이폰의 발매가 모바일 디바이스 마켓을 재편한 것이 그 전에도 변변치 않았던 통신사 독점 네트워크를 사실상 종식시키면서 비로소 네트워크 접속 양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동성 → 속도 → 정보량 → 자유

전술한 것처럼, 기존의 주류 미디어와 모바일 기반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동성이 가능케 하는 전파 속도와 정보량,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의 자유도이다. 이들 중 속도와 정보량 같은 특성들은 이미 데스크톱 환경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16대 대통령 선거 때 그 위력을 증명했지만, 일각에서 검열과 사찰의 위험성이 항상 지적되었고 그 지적은 17대 정권에 들어서 빠르게 현실화되었다. 그러한 한계점들은 기본적으로 운영 주체의 성분이 같은 모바일-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모바일 접속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통제/선전 기술이 그 정보량과 갱신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검열에서 자유로운 외국계 서비스들의 점유율이 높아 국내법 적용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어 '틈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짚고 넘어갈 부분은, 기득권층 뿐만이 아니라 운동 조직들도 모바일 환경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일으킨 상승작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되어 두드러진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사회단체들은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기는 커녕 목소리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봐야 할 정도로 섞이고 소통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소셜 네트워크 특유의 '정보 스모그 현상'과 '최소한의

가입자 정보'로 인해 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구체적이지는 않다. 최근 들어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업체들이 사회 현상과 소셜 네트워크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의 특정 사안에 관계된 메시지 랭킹이 대부분이어서 사용자가 키워드를 직접 제시해서 통계자료를 얻을 방법은 찾기 어렵다. 여기서는 통계보다는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교훈을 추려보기로 한다.

아랍혁명과 강정마을: 언론통제 우회

2010년 튀니지의 과일 노점상 부아지지의 분신 소식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파되면서 시작된 중동발 자스민 혁명은 이집트, 예멘, 시리아 등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다. 통제된 자국 통신망을 우회하기위해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용되면서 "페이스북 혁명"이라는 별칭까지 생겨났는데, 정부가 인터넷과 전화 차단으로 대응하기도 했지만 프록시 기술인 토르가 동원되고 구글이 세이나우 서비스를 통해 음성으로 트위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기도 하는 등, 기술적인 도전들도 이어졌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소식도 도지사 주민소환에 실패한 이후로는 기존 언론에게서 외면받았다. 강정마을 통신원으로 잘 알려진 김세리 씨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트위터를 시작했다"고 한다. 해상공사 준설 작업이 예정되었던 날, 트위터를 통해 해군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호응을 얻어 반나절만에 백여 개의 항의글이 이어졌고, 해군은 게시물 삭제로 대응했지만 결국 준설작업은 미뤄졌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언론통제를 성공적으로 우회했다는 의견 한편으로는 정부가 네트워크 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사찰하거나 서비스 업체들이 정부의 통제 요구에 따르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아랍 혁명의 경우 인터넷이 차단되더라도 전화, 위성, 라디오, 입소문 등이 서로 연결되어 전파력을 유지했으며 실제로 저소득층 사이에 정보를 중개한 매체는 팻말이나 전단지 등의 구식 매체였음을 지적하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희망버스와 월스트리트점거농성: 비조직적 참여

조선일보에 홍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관한 광고를 내자는 아이디어를 트위터를 통해 성사시키는 등 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배우 김여진 씨는 85호 크레인에 올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강수를 둔 김진숙 지도위원과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고 국내외 언론에 다각도로 뉴스 전파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한 조직 구성 없이 트위터에서 그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만나던 사람들의 짙은 번역과 RT는 알자지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송되었고 아프리카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그런 상승세를 타고 송경동 시인이 제안한 희망버스 역시 조직적 기획 없이 트위터 상에서 준비되고 실행되어 1,000여 명의 1차 참가자를 시작으로 7,000여 명으로 늘어난 2차를 거쳐 3차, 4차, 5차에 이르며 정당과 사회단체를 비롯한 기존 조직체들을 놀라게 했다.

월스트리트 점거 농성은 집회 시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용된 선례를 적극 활용하며 해시태그 반란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특유의 전파력을 바탕으로, 뉴스 콘텐츠로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특유의 휘발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 결합시킬 수 있는 신생 정보기술과 아이디어들이 동원되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ccupywallst.org와 페이스북 OccupyWallSt 페이지, 트위터 공식 계정 @OccupyWallSt로 관련 미디어와 메시지 가 모여들면 이것이 다시 트위터 팔로워와 페이스북 이웃 계정들을 통해 온라인 저작물 Storify,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텀블러 등으로 순식간에 복제되고 재구성되어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가 곳곳에 분산 축적되고 있다.

두 사례는 비조직적 자발성을 띠는 공통점과 함께 저마다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희망버스의 경우에는 구심점이 되는 셀레브리티의 존재가 너무 커서 결국 온전한 풀뿌리 행동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왔고, 월스트리트 점거 농성은 규모에 비해 모호한 요구사항과 산발적 전개 방향이 연성화와 자동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나는꿈수다: 기술적 가능성과 내용면에서의 한계

'나는꿈수다'는 반이명박이라는 쉽고 단순한 테마로 기획된 판지일보 계열의 시사오락 프로그램으로, 기성 미디어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 트위터와 대수롭지 않게 취급당하던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대다수 사람들의 정서와 욕구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규모있는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지일보 총수 김어준,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전 교수는

각각 방송을 진행하면서 국내 포털을 벗어난 팟캐스트 방송 '나는꿈수다'와 '닥치고 정치'를 비롯한 연관 출판물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 파트를 담당한 유명 트위터러 김용민 교수의 트윗이 배포 정보의 원출처 역할을 하고 있고, 점차 인지도를 획득하면서 개별 커뮤니티에서의 소개와 다운로드, 토렌트를 통한 공유 등 미디어 배포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어 아이튠즈 팟캐스트라는 출신 자체는 더이상 기술적인 한계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주력 실행조직인 단지일보의 경우 웹 표준이나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기는 커녕 커녕 해킹 피해에서 완전히 복구되지도 못한 처지이고 민주당도 제대로 된 인터넷 대응 전략을 갖춘 곳이 아니지만, 트위터와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플랫폼으로 삼은 것이 이러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채널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인지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나꿈수가 드러낸 한계는 기술보다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소셜 네트워크 특유의 자유스러움이 기폭제 겸 방파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인기의 요체는 결국 '대중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에 있었다는 점이다. 나꿈수는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언론의 중요한 책임요소 중 하나인 중립성을 오락물이라는 명분으로 면책받고 있는데, 이에 관한 합리적인 비판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비난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획자인 김여준 본인이 설정한 MB-반MB 대결구도가 지지를 얻으면서 증폭되는 측면이 있고, '대중의 감성이 곧 현실'이라는 수사법으로 재배포되어 개혁보수 비판을 희석시키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더구나 방송 기간 중에 광노현 사건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가 겹치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기술에 관해서 생각해 볼 점

쓸만한 분석도구가 없다

기존의 SNS 관련 통계는 그 증가세를 보여주는 개략적/양적 수치 정보가 대부분이었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디어 업계 전반의 분석 수요가 검색 및 데이터 가공 서비스와 학술연구로 이어져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점차로 문맥, 날짜, 위치 정보에 기반한 각종 인포그래픽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비스 벤더들이 raw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보 스모그 효과와 익명성이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장애가 되므로, 연구자가 직접/충분한 기간 동안 네트워크 미러링과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불특정 관심사에 대한 통계를 검색하듯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트윗믹스 등의 소셜 검색 서비스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통계 페이지를 내놓았으나, 아직까지는 많이 참조된 링크나 어휘에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카이브를 만들기 어렵다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검색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소스를 건져내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살려쓰기가 어렵다. 또한 축적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단문 메시지이고 미디어 그 자체보다 미디어 링크를 심는 경우가 많아, 작성 및 배포에는 유리하지만 읽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려면 적지 않은 품이 들고 소스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트위터에서 쓰이기 시작한 해쉬태그 기능도 원리를 따져보면 임의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 뿐이고 비슷한 키워드를 능동적으로 묶어주거나 하지는 않으므로 엄밀한 분류 기능은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두 가지 기술적 과제가 드러난다. 하나는 취약한 분류 기준, 지나치게 많은 정보량, 그에 따라 지나간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구조를 어떤 아이디어로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으로 이슈를 추적하며 수동으로 편집하는 당장의 작업 방식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전자는 장기적인 연구 과제에 가깝고, 후자는 Storify, Evernote, Instapaper 등의 기록 관리 서비스들이 이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다.